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 지원심의평

연극 분야

- 일정 및 장소 : (1차)7.13(목), (2차)7.21(금)/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선옥, 윤우영, 이기복, 이해제, 조형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은 우수한 창작 공연이 일회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재공연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의 취지에 맞게 기존 작품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며, 이때 창작산실을 통해 초연을 한 작품은 우대한다. 2017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2차 공모의 연극 부문 예산은 1억8천3백만 원이며, 일반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연극을 합쳐 총 40건을 접수했다.

1차 심의에서는 총 40편의 지원 작품들 중에 2차 심의대상을 선정하는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미 공연된 바 있는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공고문에 명시한대로 지원신청서, 공연영상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결격으로 보았다. 그리고, 1차 심의기준(작품의 수월성, 제작의 실현 가능성, 작품실적, 창작산실 여부)를 토대로 하되 심의위원 합의를 통해 다음의 심의 방향을 설정했다.

1. 창작공연의 범주에 국내 작가의 창작 작품과 더불어 해외 및 국내의 고전에 대한 창의적인 변안 공연과 재해석 연출 작품도 창작 공연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 이미 안정적인 레퍼토리 작품으로 상설화된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동점작의 경우 이미 전자의 경우보다는 앞으로 레퍼토리화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우선하기로 했다.
3. 작품실적 및 창작산실 여부 문항에 대한 평가 시에는 위원회의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미 산출된 점수를 따른다.
4. 연극계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안을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감안해 평가하기로 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 작품의 공연영상, 과거 관극 경험, 매체의 공연평 등을 참고하여 상기 심의기준, 심의방향에 의거해 토론하였고 총 8편의 작품을 2차 심의대상으로 선정했다. 2차 심의에서 4~5편 정도의 작품을 선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1차 심의에서는 2배수를 선정한 것이다. 주제와 내용, 연극성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 레퍼토리가 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작품들이다.

2차 심의에서는 8개 작품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의 프레젠테이션과 심의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심의위원들의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심의 대상 작품들이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가. 본 지원을 계기로 레퍼토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주제적·형식적 측면에서 작품의 수준, 레퍼토리화에 대한 가능성, 예산 계획의 타당성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2. 해외 희곡이거나 소설 등에 대한 번안 작품들을 두고는 번안의 개념에 대한 허용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대두되었다. 심의위원들은 번안 작품이 한국의 역사적 및 문화적 상황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면 지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3. 총 8편의 작품 중 대부분이 소극장 규모였기 때문에 1억8천3백만 원의 예산을 보다 많은 작품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단체의 신청예산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여 5편의 작품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선정작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주)극단민들레의 <가야금이 들려주는 어린이극 새>는 영유아를 관극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 있는 작품이다. 향후 갤러리 등 다양한 무대 등에서 영유아 및 부모 관객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상집단똥판지의 <지상 최후의 농담>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실존적 문제를 유머러스하고 연극적으로 풀어내 완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전 공연에서의 전문가 및 관객 반응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의 레퍼토리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달나라동백꽃의 <로풍찬 유랑극단>은 시대적 아픔과 사건을 유랑극단의 시선을 통해 사실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연극성을 조금 더 완성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레퍼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초인의 <스프레이>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 무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관극체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기대할만 하다. 특히 체계적인 음악극으로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플레이그룹 챔챔의 <하늘로 간 청춘팔>은 공연 당시 신선하고 볼거리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젊은 창작집단의 우리 전통 연희극으로 대중적 소통을 하는 점에서 향후 공연 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연의 주체들이 이 공연의 창작적 강약점이 무엇인지에 인지하고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이 기대된다.

심의위원들은 레퍼토리화의 성공여부는 작품의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았다. 공공의 지원을 계기로 작품의 레퍼토리화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다. 때문에 설치 등 작품 하드웨어적 요소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

해야하는 계획이나, 연출의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 계획은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오늘도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국의 모든 연극 예술가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심의평을 마친다.

심의위원 일동